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
이
냐

마르코 3장 33절



연중 제10주일

입당송 | 시편 27(26),1-2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1독서 | 창세 3,9-15

화답송 |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 7ㄴㄷ)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 2코린 4,13-5,1

복음 환호송 | 요한 12,31-3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 마르 3,20-35

영성체송 | 시편 18(17),3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1면 성화_정은정 아가다 作

음성지원QR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입’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친척들도 입으로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율법학자들도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려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에 담겨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 사랑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제2독서 코린토 2서 말씀은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결과를 미리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입당송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글 | 김동우 바오로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



더 큰 원을 그려라

글 |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분당성요한 본당 제1보좌)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에드윈 마크햄, '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해 더 작은 원을 그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인과 함께하기 위해 더 큰 원을 그립니다.

제1독서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과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선악과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한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끝내 그들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서로를 밀어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율법'이라는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적을 마귀의 힘으로 치부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만 떠올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분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추구함은 인간의 마음을 비좁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이고, 굳이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 제2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은 우리를 나날이 새롭게 만들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이끌어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상처가 아닌 '사랑'을, 미움이 아닌 '일치'를, 불안이 아닌 '평화'를 줍니다.

혹자는 굳이 나를 밀어내는 이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겠냐고 질타할지도,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비난할지도,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을 그려본 사람은 분명 압니다. 더 큰 원은 오히려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와 부활로 더 큰 원을 그리신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할 때 적어도 한 번이라도 주님께 여쭙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느님,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본기도 중에서).

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 것이 뻔한 아이도 불행할 것이 뻔한 아이도 불행할 것이 뻔한 아 나요? 낳아야 하나요? 낳아야 하나요? 낳아야 하나요? 낳아야 하 나요? 낳아야 하나요? 낳아야 하나요? 낳아야 하나요? 낳아야 하

글 | 박찬호 필립보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총장)

제가 부제품을 받던 날, 저는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제 서품 축하 저녁식사 후 잠깐 어머니와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이제 와서야 하는 얘기지만 우리 막내 아들 부제님은 태어나지 못할 뻔했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8남매의 맏아들이었던 제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당시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일곱 동생의 뒷바라지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입 하나라도 줄여야 했는데, 셋째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죠. 고심 끝에 부모님은 낙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건강히 잘 커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리로 인정하면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낙태죄는 6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관련법은 없는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낙태’는 한마디로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어 죽거나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직 혼자서 생존할 능력이 없는 태아를 모체의 자궁 밖으로 축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직접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모체의 치명적인 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적 낙태’와 ‘우발적 낙태’로 구분됩니다. 그동

안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가 규정하는 치료적 낙태만 허용했는데, 2021년부터는 우발적 낙태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낙태를 선택하거나 그 선택을 지지할까요?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의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심에 있습니다. 즉 태아는 여성의 신체에 속하고, 임신의 지속과 종결은 여성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여성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란 동등한 가치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나 고민과 갈등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질적으로 극명한 차이가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신발 두 켤레를 놓고 무엇을 살지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삶의 질’과 삶의 질의 전제가 되는 ‘생명 자체’를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 년 전 나자렛의 나이 어린 처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듯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종국에 가서는 행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저도 다행히 살아남아서 지금 신학생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St. Antonius
-photo by Lawrence OP_in the Parish Church
of St Casimir in Baltimore_Maryland

파도바의 위대한 설교자, 성 안토니오 (축일 6월 13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안토니오(1195~1231)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토니오는 리스본 대성당 부속학교에 다녔고,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후에 코임브라의 성 십자가 수도회로 옮겨 8년 동안 수도자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포르투갈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선교사의 유해가 성 십자가 성당에 오자 '선교사가 되어 기꺼이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난 안토니오는 열대지방 고열 병으로 인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수도회 총회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났습

니다. 성인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안토니오는 자신도 성인처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설교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신학을 쉽고 재밌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기억력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큰 목소리까지 갖췄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성당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없어 광장으로 나가 설교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설교를 시작하자 떠돌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싸우던 사람들은 화해했고, 죄지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안토니오는 이단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는 설교를 해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단자들의 망치'라고 부릅니다.

안토니오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토니오가 소중히 여기던 성경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 건너에서 "그 성경책을 돌려주어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겁이 나 그 성경책을 즉시 안토니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안토니오 성인에게 기도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파도바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도바를 '안토니오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안토니오는 서른여섯 살에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도바 성당에는 성인의 유해(턱과 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망치'처럼 강한 설교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 성인의 혀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 주셨다"

(탈출 35,31)



故 서종민 바오로 신부님을 기억하며..

글 | 이명식 가스발(안산성마리아 본당)



집 축복 하시는 신부님



신부님께서 집 축복하시며 주신 선물

신부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떠나시고 어느새 여섯 번째 봄꽃이 피고 졌습니다. 신부님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저리고 아프지만, 정겹고 감사함이 노을처럼 번져오는 몽클한 기억을 꺼내 봅니다.

신중하고 단호하고 단정한 성품의 신부님과 함께했던 공동체는 더없이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저 또한 20년 봉사 여정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낮가림 심한 제 아내는 제대회 회원으로, 큰아이는 복사로, 막내는 중고등부 해설자로 가족 모두 지금도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집 축복을 해주시며 주신 선물 '이집에 평화' 액자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있는데 아쉽게 신부님만 곁에 안 계십니다. 현재 큰아들은 은행원, 막내는 소방관이 되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신부님께서 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모든 이에게 희망이며 꽃이셨던 신부님을 뵈 수는 없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 믿고 위안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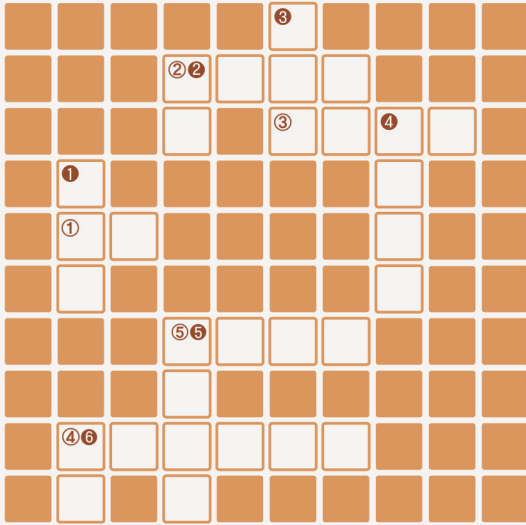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서종민 바오로 신부님



수원주보 '포토에세이'는
교우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로 세로 퀴즈

매 주일 퍼즐 조각을 모아보세요 ▶



● 가로 퀴즈

- 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2000년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면서 정한 주일로, 교회는 부활 제2주일을 이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하느님의 00주일'
- ② 교회는 해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이나 가까운 주일을 '이 날'로 지낸다. 올해는 6월 30일이다.
- ③ "분단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 설립된 주교회의의 산하 위원회다. '0000위원회'
- ④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 올해 이날은 6월 7일
- 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 한 명

● 세로 퀴즈

- 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는 000와 같다."라고 하셨다. 이것은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 ② 가톨릭 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본 단위. 교회 행정상의 구역으로 주교가 관할하며, "지역 교회"라고도 한다.
- ③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
- ④ 사랑과 정을 담아, 화살을 쏘듯이 하느님께 바치는 짧은 문구의 기도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 "주님, 자비를!"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등이 있다.
- ⑤ 교회는 해마다 6월을 0000 성월로 지내고 있다.
- ⑥ 바오로 사도의 옛 이름. 예수님은 바오로에게 나타나시어 "000아, 000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다.



▲ 응모하러 가기

※ '7면 함께하기'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과 당첨자는 6월 16일자 주보 10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신원 베드로 作

지나간 날에
연연하다 보면



어어...



미래를 온전히 가질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훌훌 털어
버려야 한다



선 김영배(요한사도) 신부 종



김영배(요한사도) 신부님께서 5월 21일(화)
오후 11시 53분에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안성추모공원 내
수원교구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1942. 1. 3. 출생

1974. 12. 7. 사제 수품

1974. 12. 14. - 1975. 4. 10.

천주교 반월성 본당 보좌

1975. 4. 11. - 1978. 4. 5.

천주교 장호원 본당 주임

1978. 7. 15. - 1980. 4. 15.

천주교 수원교구 교육원장

1980. 4. 16. - 1984. 9. 17.

천주교 호계동 본당 주임

1984. 9. 18. - 1989. 8. 23.

천주교 군포 본당 주임

1988. 5. 11. - 1990. 6. 18.

예수의 성 대건회 총장

1990. 6. 19. - 1993. 1. 6.

성 빈센트 병원 원목

1993. 1. 7. - 2003. 1. 27.

천주교 분당성요한 본당 주임

2003. 1. 28. - 2006. 9. 25.

요양

2006. 9. 26. - 2024. 5. 21.

성사전담사제

2024. 5. 21.

선종

故 김영배 신부님의 장례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조의와 깊은 애도를 표하여 주신
성직자, 수도자, 교우 여러분과 무사히 장례를 마치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교구 사제단-



문호리 본당 새 성당 기공식

일시 6.15(토) 10:00

장소 문호리 성당

(양평군 서종면 하문호나룻터길 9-4)

문의 031) 775-3008

금주에 기억할 사제



서종민(바오로) 신부

2018년 6월 15일 선종

제58차 교구 성경특강

일시 6.13(목) 13:00~17:0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3층 대성전

주제 이스라엘 지형과 함께 바라보는
복음서의 예수님 이해

강사 오경택 신부

대상 성경을 알고 싶은 모든 분

비용 1인 5천 원

문의 031) 8019-5400~1 제1대리구
031) 360-7633~5 제2대리구

제46회 한국천주교회 창립 기념행사

일시 6.24(월) 11:00~12:30

장소 천진암 성지

내용 제245주년 기념 경축 미사

주례 이용훈 주교, 사제단 공동집전

특전 참석자 전원에게 전대사 부여

문의 031) 764-5953 천진암 성지

상설고해소

북수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246-8844~5

성남동 성당

일시 매주 화요일 14:00~16:00

문의 031) 754-0409

중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441-3531

평택 성당

일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문의 031) 654-2702

미사·피정

하느님 자비의 사도모임

일시 6.10(월) 10:30
 장소 분당성요한 성당 소성당
 내용 묵주기도, 성인유해친구, 강의(떡제공)
 성시간, 자비의 5단 기도, 미사, 안수
 미사 장화기 신부
 문의 010) 6212-4450
 팔로티회(천주교 사도직회)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대회

일시 6.15(토) 09:30~17:3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내용 미사, 안수, 중식 무료
 문의 02) 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서강대학교 '영성의 책꽂이'

일시 6.17(월) 14:00~16:00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강사 예수회 심종혁 신부
 주제 새롭게 상상하는 이나시오 양심 성찰
 (강의와 미사)
 비용 무료
 문의 02) 705-4711 서강대학교

성체성혈 1일 대피정

일시 6.20(목) 09:30~17:00
 장소 권선동 성당
 강사 황인수 신부
 미사 문희종 주교, 사제단
 주제 성 아우구스티노와 성체성사
 문의 010) 5223-4840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일시 6.21(금)~29(토), 7.26(금)~8.3(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일시 7.5(금)~7(주일)
 효소단식
 일시 7.11(목)~14(주일), 8.9(목)~12(주일),
 문의 010) 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일시 7.8~8.12 매주 월요일 09:00~12:30
 장소 동탄반송동 성당
 회비 3만 원
 참고 매주 미사 봉헌
 강사 7.8 이안나 수녀
 7.15 유재걸 신부
 7.22 박상희 신부
 7.29 양창우 신부
 8.5 이병근 신부
 8.12 이임마콜라파 수녀
 문의 031) 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노고산 성지 월례 미사

일시 6.13 매월 첫째 주 목요일 11:00
 장소 서강대학교 성이나시오 성당
 참고 미사 후 성체현시 있음
 문의 02) 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성령쇄신 봉사회 찬미와 말씀, 미사

일시 6.29(토) 13:00~16:30
 장소 제2대리구청 교육관
 강의 전삼용 신부
 미사 박현민 신부
 대상 누구나(개인컵 준비)
 문의 031) 251-4400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일시 7.19(금)~22(월), 8.16(금)~19(월)
 9.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내용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비용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 9363-7784 대가톨릭교수회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8.24~25, 9.21~22
 3박 4일 6.27~30, 7.18~21
 8박 9일 6.13~21, 7.4~12
 40일 10.4~11.12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신청 031) 953-6932, 010) 4906-5722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교육·모집

은사세미나

일시 7.6~27 매주 토요일 13:00~18:00
 장소 제2대리구청 교육관
 대상 누구나(성령세미나 수료자)
 마감 6.30(주일)
 강사 박현민 신부, 박희전 신부, 최황진 신부
 박효철 신부, 김현우 신부 외
 회비 3만 원(교재비 별도)
 문의 031) 251-4400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성체신심세미나

일시 매주 월요일 12:30~16: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강사 6.10 김유신 신부
 6.17 한철호 신부
 6.24 김재덕 신부
 7.1 김현우 신부
 7.8 한연흠 신부
 대상 모든 신자(선착순 200명)
 회비 3만 원
 문의 010) 9424-2701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일시 483차 7.26(금)~28(주일)
 장소 아론의 집(성 라자로 마을)
 대상 혼인한지 2년 이상된 부부
 신청 www.suwonme.or.kr
 문의 031) 251-2258

수원교구 시니어 합창단 '배아띠' 단원

연 습 매주 수요일 11:00
 장 소 제2대리구청
 오디션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3:30
 대 상 성가대 경력이 있는 만 60세~75세
 (수원교구) 남자 00명
 문 의 010) 5497-6169, 010) 3211-4284
 수원교구 시니어 합창단 '배아띠'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 수요일 18:00~20:30
 매주 토요일 10:00~12:3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9세~13세
 접수 sjha0701@naver.com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8592-1851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수원가톨릭청소년교향악단 신입 단원

및 파트선생님
 연습 매주일 14:00~17:00
 장소 제2대리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
 대상 첫영성체를 마친 초4~대학생(수원교구)
 약기전공자(대학 재학생 이상)
 신청 annes0201@naver.com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6204-6022
 수원가톨릭청소년교향악단

수원가톨릭앗숨도미네(뮤지컬) 단원

대상 뮤지컬 선교 사업에 동참할 교우
 (9세~60세 이하)
 연습 매주 화요일 21:00
 장소 앗숨도미네 연습실
 신청 이메일(musical@adsumdomine.org)
 문자 010) 9935-7870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9935-7870
 수원가톨릭앗숨도미네

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내용 학교입학-초5~고2, 미국, 아일랜드
 단기 가능
 여름캠프-초3~중2, 보스턴, 시카고
 더블린
 참고 oakinternational.co.kr
 문의 02) 2258-8983
 그리스도 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제19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기간 6.3(월)~7.19(금)

대상 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접수 이메일 cbckcee@cbck.kr

주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문의 02) 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기 타

제주도 관광

내용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 758-6476, 010) 4566-6476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수원교구 도보성지순례 디딤길

일시 6.15(토) 손골 성지~분당이매동 성당

7~8월 여름 휴식기 휴식

9.7(토) 분당이매동 성당~남한산성 성지

참고 cafe.naver.com//didimgil

문의 010) 5953-1702(문자만 가능)

대전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내용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 (인근 성지)갈매못 순교 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방법 '요나 성당 연수원' 검색

yonaresort.modoo.at

문의 041) 934-7758 요나 성당

성모발현성지순례

일시 6.17 출발(6일), 7.14 출발(5일)

내용 베트남 다낭 라방 성모발현 성지순례

참고 라방 성지 숙소 1박 포함

문의 010) 5909-5997 성심여행사

국내·외 성지순례

일시 6.12. 22 인천교구 갑곶성지, 진무영

일만위, 교동공소

7.1~7, 7.8~14 중국, 백두산

10.21~25 나가사키, 고토

11.5~13 과달루페, 마추픽추 9일

문의 010) 9200-3532 바오로 성지순례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성지순례

일시 11.11(월)~20(수) 10일

베트남 다낭 짜케우 라방 성지순례

일시 9.9(월)~13(금) 5일

문의 010) 8705-0319 이오소피아

채용·봉사자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 사무국 직원

업무 청소년 활동·교육 및 행사 운영

일반행정업무

마감 6.20(목)

참고 www.csdy.or.kr

문의 031) 360-7921 법인 사무국

본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분당이매동 본당 사무원 / 채용 시

상현동 본당 관리원 / 채용 시

신흥동 본당 사무원 / 채용 시

중앙 본당 사무원 / 채용 시

봉사자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남양 본당 지휘자·반주자 / 채용 시

안녕 본당 반주자(유급) / 채용 시

안산성마리아 본당 반주자(유급) / 채용 시

정자꽃뿔 본당 지휘자(유급) / 채용 시

수원가톨릭대학교 영양관리팀

대상 영양관리팀 계약직(조리업무)

내용 단시간 근로 또는 주6일(48시간)까지

협약에 따라 결정

참고 www.casuwon.ac.kr '채용·공모'

문의 031) 290-8802, 8822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지원센터

대상 조리사(정규직) 1명

내용 중식 및 간식 조리업무, 식자재 구입

및 관리, 간단한 서류업무 등

자격 조리사 자격증 필수

사회복지시설 경력우대(7호봉 이하)

문의 031) 296-6255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지원센터

카페그라시아 봉사자

일시 10:00~16:00

(원하는 요일, 시간 선택 가능)

장소 동백성루카병원 내 카페

(동백죽전대로 315-29)

자격 바리스타 또는 유경험자

문의 070) 8899-2995

천주교 원목실

카카오톡 채널 운영

카카오톡에서 천주교 원목실 검색

해당 병원 원목서비스 신청

(병자성사, 병자 영성체, 대세 등)

성소모임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6.15(토) 13:00

장소 가톨릭회관 526호(명동)

대상 만39세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 3679-7198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일시 6.15(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 3800-1579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삼의 딸들 수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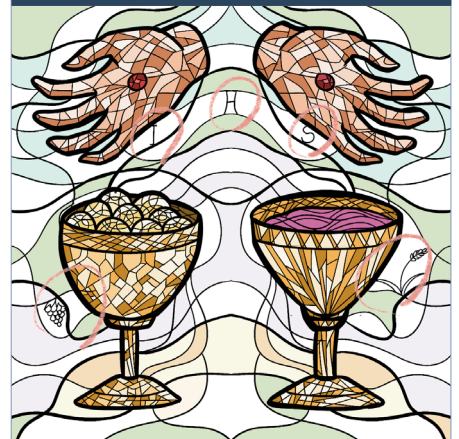
일시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061) 382-2214, 010) 7159-9674

성삼의 딸들 수녀회

<6월 2일자 수원주보 7면 정답>



▲ 당첨자 확인



▲ 그림파일 다운로드

※ 숨은 그림 찾기, 미로 찾기 원본파일을
다운로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uwon.catholic



수원교구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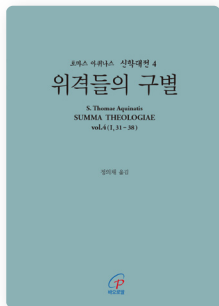
수원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 바로가기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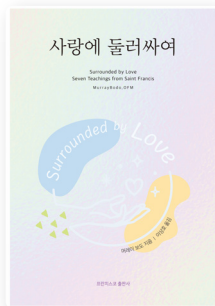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 홍보국(hongbo@casuwon.or.kr)



위격들의 구별

하느님의 존재와 본성, 속성 등 신론과, 창조와 피조물, 곧 천사·물질계·인간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논하는 「신학대전」 제1부의 제31문제부터 제38문제까지를 담은 책입니다. 「신학대전」 4권은 하느님의 삼위일체, 성부·성자·성령의 위격, 사랑과 은사 등을 다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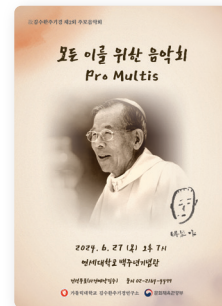
글 · 출판 | 토마스 아퀴나스·바오로딸
금 액 | 2만6천 원
문 의 | 02) 944-0944



사랑에 둘러싸여

작은 형제로서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있는 저자의 글은 조금씩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가 사랑에서 사랑을 통하여 사랑으로 가는 여정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글 · 출판 | 머레이 보도
·프란치스코 출판사
금 액 | 1만3천 원
문 의 | 02) 6325-5600



[음악회] 모든 이를 위한 음악회

음악이 이야기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애와 그 안에 녹아든 사랑을 두 귀로, 또 한마음으로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용기장이 막내아들,
추기경님 어머님의 기도 등

장소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비용 무료(사전예약 필수)
문의 02) 2164-4466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cpbc Radio 105.3MHz



김준일의 뉴스공감 월~금 18:03 ~ 19:00 57분

여러분의 퇴근길을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책임집니다~!

- 이슈 따라잡기의 뉴스생산방식을 지양합니다!
-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며 보다 새롭게, 보다 다층적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 우리 삶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깊이있게 들여다봅니다!
- 문화적 관점의 뉴스 콜라보! 편안하게 듣는 뉴스토크!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월~금 12:15 ~ 14:00 105분

점심 메뉴보다 기다려지는 와하하 신부님과 함께하는 12시! 혼밥은 할 수 있어도 혼혼은 도무지 올 수가 없어요!

노잠투피 유점무죄!

오직 재미로 뚝돌 뚝친 영준이네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재미와 감동,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영준이네 집에서 편하게 놀다 가세요